

우수인력물리다「출판」시

「プロデューサーとしての才能が必要」

河村有弘氏
日経BPP社
代表取締役社長



撮影：清水真映子 TFK

うのは、言い方が悪いのですが、一本当たればいいわけです。常に新しい雑誌の構想がある。当社には40以上の雑誌があり、スタッフライターが650人、社員は1000人近くいます。規模の割に社員が

多いんです。そろそろと、新しい媒体を作るたびに新しい人を採用するわけにいかないですね。片方では新しい雑誌を作りながら、一方で古い雑誌をやめる。ある程度のスクラップ&ビルド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新しい雑誌の構想は常にあります。売り上げの7%を開発の予算として取

- 일본 편집자들의 바이블 같은 월간지 <편집회의>(2002.7.)의 '신입사원을 위한 출판사 사장의 메시지' 기획에서, 편집자의 프로듀서 재능을 강조하는 비즈니스서 전문 닷케이BPP사의 가와무라 유코/河村有弘 사장. 편집자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 정열,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과 추진을 좌우하는 프로듀싱 능력이라 지적한다.

河村有弘
かわむら ありこう
1938 昭和13 年 4 月 12 日 東京都生まれ。1962 年 早稲田大学第一経済学部経済学部に入学。日本経済新聞社入社。編集局長等職歴を経て退社し、ニューヨーク特派員、「日経ビジネス」編集長、日経産業新聞編集長を歴任。取締役会副会長代表、筆塚出版文化などを経て、96 年日経 BPP 社発起取締役社長。取締役副社長などを経て、2002 年 3 月より現職。著書に「会社の再興」(共著)など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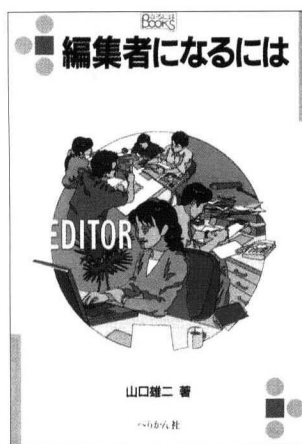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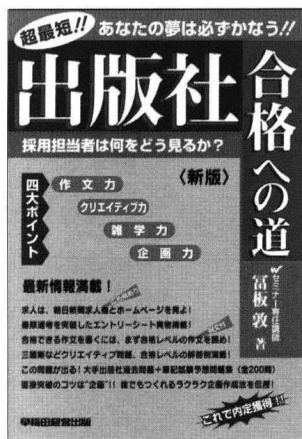
ってあるんです。どの分野にニーズと競者層があるか、競合誌があるのか、市販でやるべきなのか直販でやるべきなのか、いまある雑誌とのポジションはどうか、ということなどを事前に調査をかけて、それから発行します。五月には「日経マスターズ」という、シニア向けの雑誌を創刊します。いわば「日経ビジネス」の卒業生に向けて、球を投げてみようというターゲットになるのは、都会生活者で、大企業の管理職を経験した人、60歳以上で、ある程度経済的に余裕のある人、つまり、社会でのインターフリーでも私生活でもアクティブでありたいと思っているシニアが対象です。日本はこれからさらに高齢化しますから、この分野には必ずニーズがあるんです。新人社員に求めることは、よき編集者であり、よきライターであると同時に、よきプロデューサー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ね。当社は雑誌だけでなく、インターネットやイベント事業などでも展開発信をしています。いろいろな仕事を組み合わせつつプロデューサーするという才能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敬)

글_백원근

취업 희망분야 1번지
일본 출판계

일본에는 출판고시가 있다. 젊은이들의 출판사 취업선호도가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 그 경쟁률은 사법고시나 언론고시 못지않다.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는 일이다.

일본의 채용 정보지들에 따르면, 4년제 대학 문과 학생들 가운데 남학생은 6.6명 중 1명이, 여학생 4명 중 1명은 출판사 입사를 희망한다. 세계적인 기업과 쟁쟁한 언론사보다 경쟁률이 높은 출판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명 출판사일수록 취업문은 비늘구멍처럼 좁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웬만한 대형 출판사의 홈페이지에는 예외 없이 채용정보 코너가 있고, 입사 희망자들은 각종 자격이나 예년 필기문제 정보와 나름의 출판기획안을 차분히 준비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린다.



● 학력·이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일본의 실사구시 풍토는 대학교수들의 경력이나 저자들의 이력에서도 드러난다. 명편집자들도 경험의 전수를 위해 대개 몇 권씩의 저작을 갖고 있다. 사진은 베테랑 편집자들이 쓴 출판사 취직 가이드북 《출판사 합격의 길》(와세다경영출판)과 청소년 및 대학생용 직업 안내서 《되는 길》(총 110권, 페리칸사) 시리즈로 발행된 《편집자가 되려면》의 표지.

평균 경쟁률 100대 1 이상을 뚫기 위해 출판사 취업강좌를 운영하는 전문학원들도 성업중이다. 일본 에디터스쿨처럼 편집 실무교육에 초점을 맞춘 실무형 전문학교도 여러 곳이다. 최대 출판사인 고단사講談社の 경우 7천 명에서 1만 명 가까이 응시자가 몰리는데, 올해는 그 가운데 20명을 채용했다. 《매스컴 취직독본(출판편)》, 《출판사 합격의 길》 등 다양한 출판계 취업 관련서도 엄연히 출판영역의 작은 장르로 자리잡았을 정도이다. 이런 책자들은 출판사별 기본정보와 함께 필기시험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면접 공략법까지 상세히 제시한다. 우리의 대입수능시험을 연상시킨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출판사가 인기일까. 줄여 말하자면 대형 출판사일수록 보수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보람 있고 즐거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대졸 월급 초임은 다른 직종과 비슷한 200만 원대가 일반적이지만 후쿠인칸福音館書店처럼 430만 원인 곳도 있고, 30대 후반 기준으로는 평균 600만 원, 55세 기준으로 900만 원 등 연봉 1억 원 이상인 곳도 상당수 있다. 고단사가 작년에 첫 적자를 기록한 진짜 이유는 불황 탓이 아니라 인건비 때문이라는 말조차 나온다. 연차가 쌓일수록 고액이 되어, 일반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물론 모든 출판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임금 수준이 타업종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잡지와 만화 등 매스미디어적 성격이 강한 대중 출판물이나 차별화된 전문 분야별로 꾸준한 스테디셀러를 양산해 높은 매출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대체로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 출판계에 진출하는 까닭에 일 자체를 즐기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승부근성 등이 장기근속을 뒷받침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출판 종사자를 위한 인프라가 충실한 것도 출판계 장기근속 매력 중 하나이다. 1947년에 설립된 출판건강보험조합은 현재 1,312개 출판사가 가입해 가족까지 총 14만2천 명의 건강관리와 전용 휴양시설을 책임지는 일본 유수의 종합건강보험조합이다. 또 1958년 정식 결성된 일본출판노동조합연합회(출판노련, 조합원 약 8천 명)는 출판사·도매상·서점 종사자들이 가입해 일반적인 노동조건 이외에 출판의 자유 확보, 교과서 문제(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제기 등), 다기한 직능교육, 여기에 출판관련 프리랜서들의 권익 향상 및 각종 보험사업과 해외여행 공제사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 학생들은 출판고시 준비를 어떻게 할까. 출판사 입사에는 대체로 대졸 자격이 필요하며, 전공은 따지지 않지만 적성과 능력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출판사는 모집요강을 자사 매체나 신문광고 등으로 발표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쿄와 지방에서 여러 차례 입사설명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다. 고단사의 경우 서류전형(자기소개서, 면접카드, 작문, 촌평) 및 폭넓은 일반교양을 묻는 필기시험, 3차에 걸친 면접을 거쳐 채용인력을 결정한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4년제 대학생은 늦어도 3학년 초부터는 출판사 취업준비 학원에 등록하거나 자체 동아리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다. 작문, 창의력, 잡학력(시사·교양·어학·상식), 기획력의 4박자를 갖추기 위해 매진하는 것이다.

참고로, 출판계 구인광고 중 대표적인 것이 아사히신문 일요판, 월요판의 구인광고란이다. 매주 10여 개 이상의 출판사 구인광고가 실리며, 일반적인 출판광고나 서평 역시 가장 권위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한편 출판사 못지않게 출판계와 취직전선에서 비중이 있는 곳이 편집 프로덕션이다. 약 2천 개를 헤아리는 편집 프로덕션은 출판물의 편집대행뿐 아니라 자체 기획물을 OEM(주문

우수한 출판인력이 책과 사회의 미래

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적당한 출판사에 팔아 수익을 얻는다. 사장 1인 회사부터 100명 이상의 큰 규모까지 있는데, 일반 출판사에 비해서는 입사하기 쉽지만 소정의 엄격한 시험을 거쳐 채용한다. 여기서 경력을 쌓아 출판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잡지왕국인 만큼 프리랜서 라이터 양성과정을 거쳐 '절반의 취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느는 추세이다.

골 깊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속에서 대졸인력의 구직난이 정책현안으로 부상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라 하지만, 취직 한 번 못해 봤는데 실업이라니, 미혼자를 이혼자 취급하는 꼴이다. '구직난 속 구인난'이라고도 한다. 이른바 3D업종 지망자도 드물지만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는 더욱 찾기 어려운 현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약화와 노동력의 사회적 방기현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업 눈높이를 낮추든지 창업하라는 대안 제시도 당사자들에게는 냉혹한 충고일 뿐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직업교육과 사회 진출을 염두에 둔 전문능력 탁마를 등한시하도록 방치한 교육제도야말로 청년의 희망을 앗아간 주범이다.

출판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보다 열악하다. 신규인력을 뽑는 출판사도 드물지만, 출판사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은 더욱 드물다. 경력자들도 그만그만한 다른 출판사로 옮기기보다는 차라리 창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등록 출판사 2만 개로 인구비례 세계 1위의 출판사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영세업체간 과당경쟁 구도가 곧 세계적인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오늘날 우리 출판산업의 고용창출부진은 낮은 생산성, 이에 따른 열악한 임금과 높은 이직률, 직업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고급인력 유입 차단과 저생산성 등 악순환 메커니즘의 한 고리이다. 사회적 독서환경도 열악한 데다 책의 상품성이 낮아 안 팔리고, 매출이 적으니 고임금으로 우수 인재를 고용해 확대 재생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재론의 여지없이 인재는 모든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특히 사회 변화와 독서 수요를 책으로 상품화하는 기획력, 편집 능력, 마케팅 감각이 중시되는 출판에서 맨파워는 제일의 경영자산일 것이다.

출판사·도매상·서점에 약 20만 명이 근무하고, <일본출판연감>에 게재된 4,500개 출판사 중 20퍼센트가 100명 이상인 일본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백발이 성성한 편집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준비된 인재들이 출판계에 '젊은 피'로 공급되는 일본의 모습은 위화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일본 역시 경제 불황으로 신입사원 선발이 줄고 있고, 중소 출판사들이야 엄감생심 '젊은 피'를 수혈할 여력조차 없다 한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장기근속이 많은 일본 출판계와 경력자들의 세포분열식 출판사 창업 열풍이 부는 우리 상황의 대비는 '다이내믹함의 허허로움'을 안겨준다. 출판계 신규인력 양성, 종사자 전문 재교육 과정, 인력풀 시스템 정립 등 종합적인 출판인력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청년실업'이 사어가 되고 젊은이들이 출판사에 쫓겨갈 날을 그려본다. 출판의 내일은 인재 확보 역량과 일치한다. **이준**

이 글을 쓴 백원근은 현재 (재)한국출판연구회 소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 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계 주간지 <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